

2027년 예산안에 성착취 피해아동·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9.18. 이데일리는 「위기청소년 구조 한시가 급한데…인력충원은 ‘요원’」 기사에서,
 - “성착취 피해아동·청소년센터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”며, “현장에서는 전국 17개 센터에 최소 2명씩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정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'27년 예산안에 성착취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확충 예산을 최초로 반영하였습니다.
- 실태조사 진행 결과 이용인원이 많은 6개 센터를 선별하여,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	진민규 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전수민 (suej256@korea.kr)